

## 감리지적사례 FSS/2112-08 :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

- 쟁점 분야 : 매도가능증권
- 관련 기준 :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(금융상품)
- 결정일 : 2012년
- 회계결산일 : 2011.1.1.~2011.6.30.

### 1. 회사의 회계처리

타이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(이하 '회사')는 소유하고 있는 국채, 지방채, 카드채 등의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이를 수탁하고 있는 B증권사의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.

### 2.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

회사가 소유한 국공채 등의 매도가능증권은 증권거래소 및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시가로 평가된 금액(2,344억원)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증권사 잔고증명서 금액(2,295억원, 고객 매수금리로 할인한 현재가치 등)으로 평가함으로써 매도가능증권을 49억원 과소계상하였다.

### 3.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

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(금융상품) 문단43 및 문단48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,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며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.

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근거로 금융상품을 평가하였으나,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시가 평가하지 않은 것은 기업회계기준서의 금융상품 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.

### 4. 시사점

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평가방법 등 기업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다.